

하나님께서 십대인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렘1:10)

당시에 이스라엘은 심각할 정도로 부패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건설하고 심기 전에 먼저 남아 있는 것들을 모두 뽑으셔야만 했다. 이 세상은 너무도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심어 건설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의 악한 제도들을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셔야 했다.

17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종교 제도를 멸하는 것이다.(17:5)

가장한 것들로 채워진 잔, 즉 거짓 종교 체제의 멸망을 다루기에 앞서서 분명히 표명해야 할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거짓 종교 체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발자의 손가락이 거짓 종교 체제를 가리키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반목이나, 또는 불행히도 그런 체제에 속아넘어간 사람들에게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사실상 교회는 어둡고, 추하고, 흉악하며 서글프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변호할 수가 없다.

오래 전에 교회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 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으로부터 끊어져 나왔다. 교회는 “우리끼리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과 조직, 그리고 인간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아주 복잡하고 의식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쉽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께 말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아무때나,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친밀한 상호 교통과 사귀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종교적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형태의 우선 순위와 범주를 제멋대로 설정해 놓았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 부유 계층과 특권 계층을 옹호하게 되었다. 편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한몸으로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시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다(갈3:28).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보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교회사, 그 중에서도 특히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 시기의 어둠은 교회가 백성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억압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의 심한 박해를 겪었다. 교회가 세워지고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은 약 6백만 명이나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사형수가 됨을 의미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대제 때 와서(주후 288-337년) 큰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콘스탄틴대제는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主)로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박해받던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교회는 국가와 결합되었고, 국가는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법률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보면서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권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문제를 놓쳤다. 의는 결코 법률로 제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교황의 자리가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경매로 팔리게 되고,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도덕과 음탕한 일들이 행해졌던 중세의 교회사를 우리는 차마 낫 뜨거워 볼 수 없다. 교회에는 진실된 영성이 없었다.

대타협이 이루어진다. 콘스탄틴대제는 기독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교도들의 경축 행사에 기독교식 이름을 붙여 기독교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그는 농신제라는 이교 의식을 수용했다. 그것은 원래 로마에서 12월 25일에 행해진 것으로 진탕 마시고 노는 술잔치가 있었던 축제일인데, 이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촛불을 켜고, 동지 때는 기운 없고 오래된 태양을 위해 큰 횃불을 피우기도 했다.

콘스탄틴대제는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제정했다. 그는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이라고 축하하면서 '크리스마스'(Christmas)라고 불렀다. 농신제 기간 중에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미사가 거행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이교식 관례를 따르고 있다. 요즘에 와서는 크리스마스가 전세계적으로 더욱더 이교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은 로마 시대보다 더하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각종 파티, 여흥, 선물 주고받기, 의식적인 축하 행사들뿐이다.

봄의 축제 역시 기독교와 혼합되었다. 아스타르테(Astarte)는 영원한 생명의 여신이었다. 생명을 상징하는 달갈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 것은 그 축하 행사의 한 부분이었다. 교회는 "이것을 부활절(Easter)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축하하도록 한다"고 했다.

성직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종교에 있었던 것이다. 우상이 들어오고, 고해성사가 들어오고, 심지어 경배와 예식들조차도 모두 바벨론 종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교회에 소개되면서 교회 의식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것들은 초대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로서, 교회에 들어와 점점 예배와 경배를 더럽혔다. 주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교도들의 방식을 좇아서 하나님을 섬겼다.

종교 재판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하고 신실한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들은 모두 단순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들이다. 그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어둡고 추한 교회사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독교 형제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 안에도 많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다. 나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을 뽑아내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 올 자들을 빼시는 것이다. 오늘날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 운동은, 이제까지 카톨릭 역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증유의 운동이다.

바티칸에서 수 천 명의 카톨릭 교도들이 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 베드로 성당에 모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갈보리 교회에서 부르는 것과 같은 찬송도 했다. 교황은 이 신자들에게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더욱 열심을 내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로써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나님이 그 조직을 성령으로 움직이시고 계셨다. 카톨릭 교도 가운데 진실로 믿는 자는 교회가 들림받을 때 함께할 것이다. 남겨져 그 조직을 다스리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위해 기도해온 나로서는 그 일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계시록 17:1-5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17:1)

‘많은 물’은 많은 나라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큰 음녀’란 그런 많은 나라에 대한 세력과 지배권을 얻게 된 올바르지 못한 교회 제도를 말한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17:2-3)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계시록 13장에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적그리스도)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17:4-5)

비밀과 바벨론이 이 교회 제도의 정체이다. 역사를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알렉산더 히슬롭(Alexander Hislop)이 지은 「두 바벨론(The Two Babylons)」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 히슬롭은 고대 바벨론 종교의 역사적 정체성을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해 온 이 종교 제도와 하나로 보고 있다.

계시록 17:6-9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17:6-7)

이것은 거짓된 교회 제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어떤 공모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 같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17:8-9)

요한은 우리에게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도성을 가리키고 있다.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다. 예로부터 로마는 “일곱 언덕의 도성”으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계시록 17:10-11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17:10-11)

짐승의 정체성은 계시록 17장에서 언급된다. 그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로마는 틀림없는 도성으로 확인되었다. 요한은 일곱 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다섯은 망했다고 한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의 로마 황제는 도미시안 이었다. 순서를 따진다면 그는 여섯 번째 황제였다. 그 뒤를 이어 한 명의 황제가 더 있었고 그 뒤를 이을 또 한 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가 여덟 번째이며 또한 일곱 중에 속한 자이다.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령이 지혜와 이해력을 주시는 것으로 보인다. 요한이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자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옥에 떨어지거나 멸망에 들어간다.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는 네로였다. 그는 초대교회에 ‘짐승’으로 알려진 자로서 삶에서의 극적인 변화로 매우 흥미있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도 처음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는 꽤 분별있는 통치자처럼 보였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유익한 건축 계획에 착수했고, 실제로 고린도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나 마치지는 못하였다.

어떤 극적인 변화가 그의 삶에 찾아왔고, 그 이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로 앞에 섰던 바로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관심을 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류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를 가이사(시이저)에게 호소하였는데, 이 때 총독 베스도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행25:12). 그래서 바울은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로 보내진다.

재판을 받기 위해 네로 앞에 선 바울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력을 다했을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바울의 방식이었다. 유대인 앞에서 변론할 때나 벨릭스나 아그립바 앞에서 변론할 때에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네로가 이제까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했을 것이고, 바울이 변호를 마쳤을 때 네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명확한 관계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네로는 바울을 풀어 주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후,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 같다. 바울이 전해준 메시지를 거부한 네로는 자기 삶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고, 그래서 악령이 들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돌려서 무자비한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의 몸에 콜타르를 칠하고, 정원에서 그들의 몸에 불을 질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면서 불타는 시체 사이로 그의 마차를 달리게 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체포하여 처형시키고 베드로도 잡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다.

계시록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실 당시 네로는 이미 죽은 후였다. 그는 당시로는 없는 자이나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자이다. 나는 네로 황제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앞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모든 특징이 적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13장에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고 했다.(13:18)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각 문자마다 고유한 숫자가 매겨져 있다.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Caesar nero)라는 이름의 글자가 갖는 수는 모두 666이다. 나는 네로 황제를 사로잡았던 그 악령이 적그리스도도 사로잡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데, 그러면 똑같은 악령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네로가 행했던 악행 가운데 몇 가지를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도 행할 것이라고 본다.

계시록 17:12-13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17:12)

이 열 뿔은 열 왕 또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권세를 병합하게 될 유럽의 열 나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가리킨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머리는 정금ियो,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는 놋ियो, 종아리는 철이며, 발의 열마는 철이고 열마는 진흙인 한 우상을 보았는데(단2:31-45),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한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숩뜨렸다. 그러자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고 그 나라는 붕괴되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은 곧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러나 왕의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 넘어갈 것이니 이는 곧 은으로 된 가슴과 팔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그리이스 제국으로서, 곧 놋으로 된 배입니다. 또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이며, 이것은 철로 된 종아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라는 열 개의 발가락이 있는 철과 진흙으로 혼합된 나라입니다.” 바로 이 열 왕의 때에 산에서 돌이 나와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들을 멸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내용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현되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17:12-13)

일단 유럽 경제 공동체(EEC)가 열 개의 나라로 완전히 형성이 되면,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게 된다. 열 명의 사람이 각각 대표자로 행동하기 때문에 지도력이 분열되어 정책에 우유부단함이 보일 것이다. 그 열 사람 중

아무에게도 실질적인 결정적 세력은 없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 열 나라의 무리를 이끌 한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권세를 한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될 것이다.

계시록 17:14-18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17:14)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들의 자격은 세 가지이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빼내었으니,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요15:16)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17:15-18)

로마는 요한의 기록 당시에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던 성이었는데, 유럽 공동체에서도 특출한 곳으로 다시 한 번 부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그 큰 성과, 그 성에서부터 일어난 종교 제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